



200만 전북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가 성황리 막을 내렸다.

# 전주시, 도민체전 종합 우승 확정

## 전북도민체전 성료 차기 개최지는 남원

200만 전북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가 성황리 막을 내렸다. <본보 5월 13일자 1면> 13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옹비하는 천년 전북'이라는 구호 아래 지난 10일 고창군 일원에서 개막한 전북도민체육대회가 이날 폐회식을 끝으로

시흘간의 열전이 모두 끝났다. 올해는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시범종목을 포함해 38개 종목이 치러졌고, 도내 14개 시·군 약 2만5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고향의 명예를 걸고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전주시가 종합 우승(종합성적 1위)을 들어 올렸고 익산시가 2위를 차지했다. 개최지 가산점을 받은 고창군이 3위를 군산시와 정읍시가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또 종합시상 점수에서 제외된 학생부 경기 종합 1위도 전주시가 차지

고 군산시가 2위, 익산시가 3위를 차지했다. 개최식 시·군 입장식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지역 특성을 잘 살리고 관중들의 이목을 끈 임실군이 입장상 1위를 거머쥔고 고창군과 남원시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화합상은 무주군과 진안군, 완주군이 선정됐고 김제시와 부안군은 특별상을 받았다. 전북롤러스포츠연맹과 전북족구협회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기 운영으로 타 종목단체의 귀감이 돼 모범경기단체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학생부 배드민턴 종목 단체

우승을 차지한 고창초 천혜인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천 선수를 지도한 김상필 지도자가 지도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큰 안전사고 없이 도민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며 "체육을 통해 하나되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서는 차기 전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인 남원시로 대회가 전달됐다. /정은성 기자

# 오늘 역대 최대 규모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막... KPC하우스 오픈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오늘부터 17일까지 4일간 익산, 전주 등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3,607명(선수 1,885명, 임원 및 관계자 1,72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학생들이 총 16개 종목에 출전한다. 경기 일정과 결과는 대회누리집 (<http://13thyouth.koreanpcr.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관련 뉴스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체육 홍보를 위한 KPC 하우스도 장애인체육전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13일 13시부터 17일까지 5일간 원광대학교에서 운영된다. 장소는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 개최지인 익산 소재 대학교내로 선정됐다. KPC하우스는 코리아하우스의 국내

형 홍보관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와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코리아하우스를, 국내 종합대회는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도 KPC하우스를 운영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 김승환 교육감 "숲놀이 가능한 부지 적극 발굴"

김승환 교육감이 숲놀이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놀이시설이 잘 갖춰 있어야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면서, "숲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놀이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부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 중

접근성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있을 수 있다"며, "숲이라는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민주주의란 정치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그걸 넘어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개념"임을 강조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올바른 관점과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초·중·고 교사 대상 과학수업 Q&A 운영

전북도교육청은 과학교과 교사들의 비전공영역 수업에 대한 궁금증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 '과학수업 Q&A'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공 관련 폭넓은 지식과 열정을 가진 중·고교 교사 8명으로 과학교과자문단을 꾸려 과학교과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도내 모든 초·중·고교 교사가 대상이며, 과학수업 담당 교사의 수업에

대한 궁금증 해결 외에도 과학교사의 비전공영역 수업, 과학 외 교과 교사의 과학 관련 내용 등에도 자문과 설명을 해주게 된다. 질문과 답변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미래인재과 업무마당)의 '과학수업 Q&A 카페'를 통해 이뤄지며, 도내 초·중·고교 교사가 카페 게시판에 질문 내용을 올려놓으면 과학교과자문단에서 답변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정은성 기자

### 양질의 특수교육 여건 조성

#### 도교육청, 장애학생 가족동반 해외현장체험학습 실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장애학생 가족동반 해외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3~17일까지 3박 5일간 초·중·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과 가족 인솔자 등 38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해외문화 체험의 기회가 적은 장애학생과 보호자에게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해외현장체험학습 기회를 부여해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특수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고, 지역과 학교교를 고려하여 선정된 총 60명의 장애학생과 그 가족이 체험학습에 참가하고 있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우리가 그렇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19년 상반기 체험 일정은 현지 관광과 장애인 복지시설 탐방으로 꾸며진다. 주류세 공원, 국립식물원 보타닉 가든, 센토사 섬 등 풍부한 자연과 쾌적한 환경을 체험하고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등 다민족 국가임에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싱가포르의 문화도 경험하게 된다. 또한 16~55세의 지적 장애인을 돌보고 교육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Christian Outreach To The Handicapped'를 방문한다. 이곳에서는 그림 그리기, 만들기, 노래 부르며 율동하기 등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뤄지며 매주 전문 재활치료사가 방문해 각 장애별로 맞춤형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애학생과 학부모는 선진 장애인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공동 생활하는 모습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들이 해외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사회적응력과 자신감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 자료와 정보교류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핵심 역량을 강화해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교육복지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 '최우수'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권대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16개 창업보육센터 대상에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지원 인프라와 입주기업에 위한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실적, 매출 및 고용 성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창업보육센터) 보육역량강화사업 우수 네트워크에도 선정돼 3차년도에 2억 7,2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다. 전북대 창업보육센터는 이를 통해 우수대와 호원대, 생물산업진흥원, 한곡탄소융합기술원 등의 창업보육센터와 함께 입주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권대규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장은 "초기 창업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구축과 대학의 전문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해 성장 가능한 창업기업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